

# 나주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역량 결집

### 범시민추진지원단 발족식 개최...467명 단원 구성

### 440억 투입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 2024년 완공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민·관 역량 결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지원을 위해 구성된 '범시민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국난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의 충혼을 기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일궈온 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전라남도 역적 사업이다.

도는 지난 해 7월 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도내 8개 시·군 중 나주시 공산면 영상테마파크 일원을 사업 대상지 1순위로 선정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설립 사전평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박물관은 체험·교육·문화시설과 함께 영상테마파크 일원 부지 36만3686㎡에 연면적 8300㎡규모로 총 44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범시민추진지원단은 전국 14개 의병문중과 광주·전남지역 등 5개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해 나주문화원, 나주·남평향교, 나주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청년회의소, 정찬균 나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지원단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출향 향우, 언론인 등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총 46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 공동단장으로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영덕 시의회의장, 최일 동신대총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리명환(사)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날 발족식은 공동단장 5인과 신정훈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과 지원단 대표협의체, 지지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의병종합연구소 문중 설명회, 사업추진현황보고, 개회사, 의병문중 대표 선언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라도의 탄생지 나주의 명성은 국가를 지키다 쓰러져 간 의병 선조들의 구국과 충혼정신에서 비롯된 만큼 전

라도 의병정신을 미래까지도 창출하게 될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라도 의향 나주의 위상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의병문중과 독립운동단체, 출향 향우, 각계 기관·사회단체 등 지역민 모두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에 이어 임진왜란 발발 후 호남 최초 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건재 김천일의 후손인 언양김씨 문중 김남전 회장은 지원단 대표로 발족식 선언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호남 의병의 희생과 정신이 과거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과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도 역사의 주역으로서 나주인의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 박물관 건립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며 결의에 찬 선언문을 낭독했다.

지원단은 전라도 천 년 역사의 중심이자 시대를 불문하고 국난 때마다 수많은 우국지사들을 배출해 구국에 앞장서온 전라도 의병의 성지(聖地), 나주시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활동에 나선다.

특히 남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부대행사 참여 지원 등 박물관 건립의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완료

### 내일 백신접종 모의훈련

화순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화순군은 이용대체육관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적이고 신속한 접종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전남도 백신접종추진단,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백신 관리와 의료 기구 등 설비, 접수 전 단계부터 이상반응 관찰과 응급 대응 등 설비·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군은 읍·면과 긴밀한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접종 동시 접수, 접종 예정자의 이동 지원 계획,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읍·면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4월 15일부터 시작하는 75세 이상 주민의 접종 동시 접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예로사항 등의견을 수렴,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본청 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 방문 접수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면 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

읍·면별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동의 절차(사전 예약, 전화(접종 3일 전과 1일 전)·문자·마을 방송 등을 통한 개인별 접종 일시 안내, 접종센터 이동 지원(셔틀버스 운행),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단계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화순 지역 75세 이상 주민은 4월 15일부터 화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이용대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군은 원활한 접종 시행을 위해 읍·면별로 접종 날짜와 시간을 분산했다.

오는 31일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접종 대기, 준비, 접종, 접종 후 관찰, 이상반응 발생 시 처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그린뉴딜사업 본격화

### 보고회 갖고 82개 세부과제 실행계획 수립 통한 실행력 확보

담양군이 지난 25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담양군 그린뉴딜 중기 실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담양군은 생명·포용·미래의 담양에 비전을 두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정책'의 기조를 발판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일자리창출 6,155개, 온실가스 감축 41만tCO2eq, 소득격차 감소를 목표로 3대 전략, 12개 융합사업, 82개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까지 수립된 중기계획 82개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굴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

대나무 숲 확대로 산림탄소저장기반 구축 ▶순환경제 사회 조성 ▶노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탄소소주 축전환 ▶내연기관 없는 보행자 전국거리 조성 등이다.

보고회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업추진과 병행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범군민운동을 통해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구례군, 봄철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예방백신·전용 치료제 없는 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구례군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실내활동이 줄고, 도심 외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국내 주요 매개종

인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주로 4~10월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리거나, 드물지만 SFTS 증증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접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다.

SFTS의 잠복기는 4~15일이며, 코로나19의 증상과 유사하여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증상은 고열

(38~40℃),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림프절 종창, 출혈성소견(열노, 혈변, 잇몸출혈, 피부반상출혈, 점막/결막출혈) 등이 있다.

SFTS의 경우 치명률이 높고(약 20%), 치료제가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야외활동 전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 거듭 당부한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곡성군, 농번기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 위해 안전교육 추진

곡성군이 지난 26일 이슬머멘블론 공선회원 15명을 대상으로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농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이 추진하는 '2021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과 개선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교육 강사로는 전남 농업안전보건센터 김재윤 강사를 초빙했다. 참석자들은 농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또한 농번기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도, 추락, 골절사고 등 안전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도 배울 수 있었다.

공선회 대표 A씨는 "농업의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농업인들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조성과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양영희 기자

#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